

보도시점

2025. 7. 29.(화)

배포

2025. 7. 29.(화) 16:00

질병청, 치쿤구니아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

- 최근 중국 광둥성 지역, 인도양 국가 등 대규모 유행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확산 위험을 경고하고 조기감시 및 예방 등의 긴급 조치를 촉구
- 유행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 알리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28일(월)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최근 프랑스령 레위니옹 및 마요트 등 인도양 국가 및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유행 확산세인 치쿤구니아열의 국내 유입을 대비하기 위해 유행 상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다.

치쿤구니아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며,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모기물림 외에는 드물게 감염된 혈액제제의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매개모기는 숲모기(이집트숲모기·흰줄숲모기)이며, 땡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을 모두 매개한다. 이 중 주요 매개모기는 이집트숲모기이지만 국내에는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만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치쿤구니아열 매개모기



<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

발생장소 및 활동시간

(발생장소) 숲, 주거지, 공원 근처의 버려진 용기, 나무 구멍, 페타이어, 화분, 배수로, 지붕 물받이, 강통, 낙엽 쌓인곳 등에 고인 물, 웅덩이

(활동시간) 주로 낮시간에 활동

2010년에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환자를 전수 감시하고 있으며, 2013년 첫 환자가 유입된 후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 총 71명이 신고되었고, 모두 해외방문 후 감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사례이다.

<연도별 치쿤구니아열 환자 신고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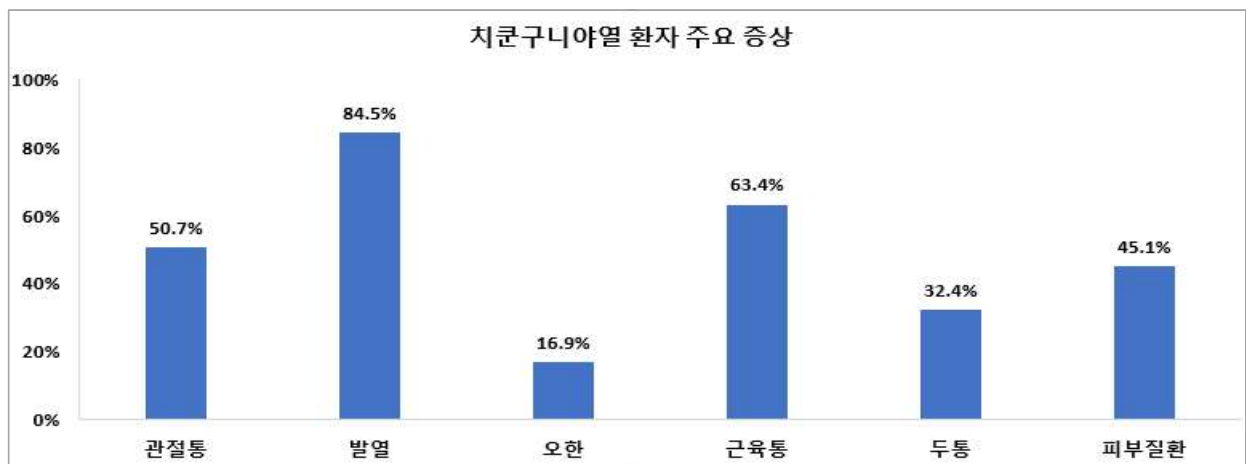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
신고수	2	1	2	10	5	3	16	1	0	8	13	9	1

* 2025년은 7.25일까지 잠정통계임

환자의 특성으로는 남자가 57.8%(41명)로 여자 42.2%(30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20대~50대가 87.3%를 차지하였다. 또한 추정감염국으로는 국민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아시아가 9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남아메리카(수리남, 에콰도르, 파라과이), 아프리카(기니)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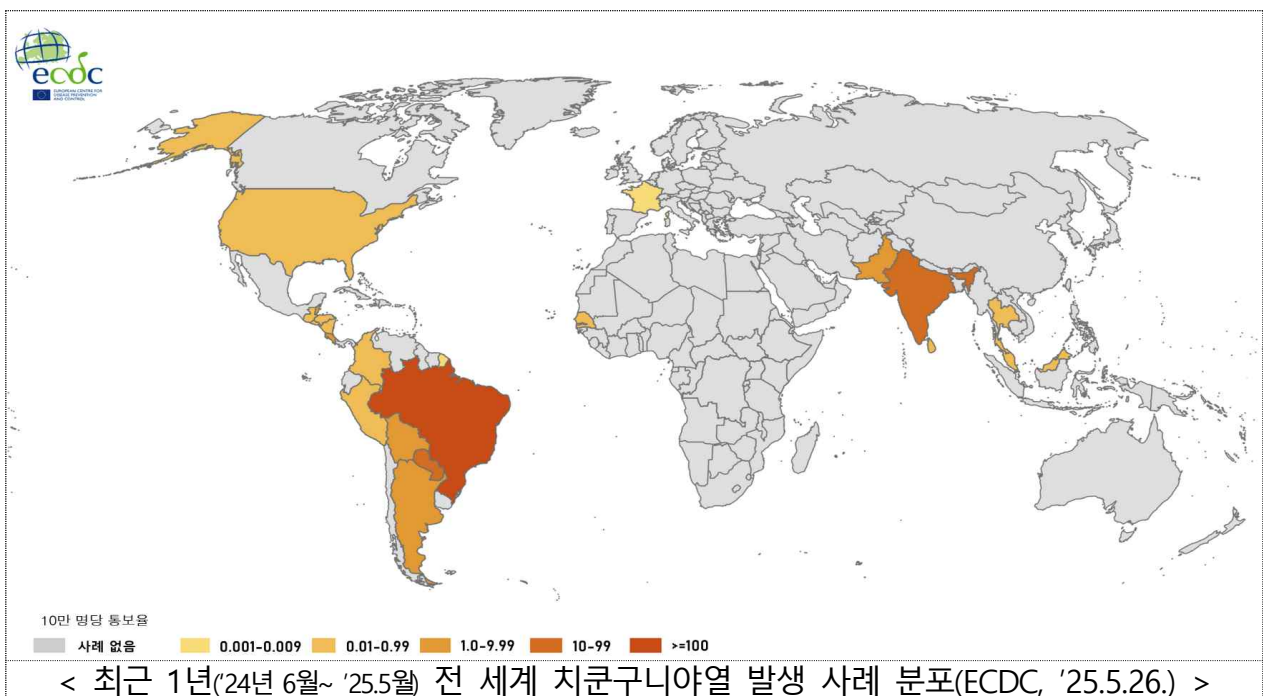
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발열(84.5%), 근육통(63.4%), 관절통(50.7%), 피부 질환(45.1%), 두통(32.4%) 순이며, 중증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년 국외 치쿤구니아열 발생은 6월 초 기준 14개국에서 약 22만 명이 보도되었고 그 중 80명이 사망하였다(ECDC). 미주 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최근에는 인도양에 위치한 프랑스령 레위니옹 및 마요트, 모리셔스** 등에서도 많은 환자가 보고되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근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올해 4,824명(7.27. 기준)이 보고됐다.

* '20년 103,046명, '21년 138,400명, '22년 273,841명, '23년 411,560명, '24년 431,409명, '25년 201,271명(7.28.기준)

** 레위니옹 54,233명(6.29.기준), 마요트 1,098명(6.29.기준), 모리셔스 17명(4.2.기준)



질병관리청은 국외 치쿤구니아열 발생 현황을 반영해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국내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위험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낮지만,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감염환자 해외유입 시 잠재적인 노출 가능성은 있다.

치쿤구니아열은 Dengue 및 Zika바이러스 감염증과 다른 질환이지만 증상과 주요 발생지역이 유사하고 동일한 매개모기에 의해 전파됨에 따라 현재 Dengue 및 Zika바이러스 감염증에 준하여 대응하고 있다. 2023년 12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환자감시, 매개모기 방제, 대국민·해외여행객 대상 예방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 치쿤구니아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광둥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입·출국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며, ▲공항만 검역구역 내 해외유입 매개모기 감시 지점을 추가(기존 36개 → 확대 40개)할 예정이다.

한편 치쿤구니아열 예방을 위해 출국 전·중·후 행동수칙도 강조하였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출국 전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치쿤구니아열·뎡기열·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을 준비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정책정보 >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관리 > 모기매개감염병관리 >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관리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 > 해외 감염병 정보 > 주의해야 할 해외감염병

아울러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국 시 발열, 관절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13개소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귀국 후 2주 이내 증상 발생 시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 기후변화로 치쿤구니아열 매개모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어, 해외여행객의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의료인은 발열자 문진 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치쿤구니아열, 뎡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단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방역당국도 치쿤구니아열 국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자 감시 및 매개체 방제, 예방수칙 안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① 여행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② 여행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및 '산 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밝은 색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는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기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③ 입국 시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건강상태 정확히 입력하기

④ 여행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관절통, 근육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리기
- 귀국 후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 금지

<붙임> 1. 치쿤구니아열 감염병 개요

2. 치쿤구니아열 국내 유입 환자 감염 국가 현황

3. 치쿤구니아열 바로 알기(Q&A)

4. 치쿤구니아열 예방수칙 홍보자료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 종 희 (043-719-7160)
		담당자	연 구 관 이 소 담 (043-719-7162)
		담당자	연 구 사 신 현 일 (043-719-7175)
담당 부서 <협조>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유 효 순 (043-719-7550)
		담당자	조 사 관 최 시 원 (043-719-7559)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 성 순 (043-719-7950)
		담당자	조 사 관 이 정 현 (043-719-7736)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 옥 수 (043-719-9200)
		담당자	사 무 관 민 철 우 (043-719-9217)
	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	책임자	과 장 한 명 국 (043-719-8190)
		담당자	연 구 관 김 희 만 (043-719-8192)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 희 일 (043-719-8560)
		담당자	연 구 관 주 정 원 (043-719-8521)

붙임 1

치쿤구니아열 감염병 개요

정 의	• 치쿤구니아 바이러스(Chikungunya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질병분류	• 제3급 법정감염병
병원체	•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Chikungunya virus) – family <i>Togaviridae</i> genus <i>Alphavirus</i>
병원소	• 모기 • 사람 및 영장류(Nonhuman)
매개체	• 숲모기류(<i>Aedes aegypti</i> , <i>Aedes albopictus</i> 등)
전파경로	•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를 통해 전파
잠복기	• 1~12일(일반적으로 3~7일)
임상 증상	• 주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관절통 등이며 그 외에도 두통 근육통, 관절 부종 또는 발진이 있으며 피로가 수주까지 지속 • 심근염,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뇌신경마비, 눈 질환(포도막염, 망막염)과 골수염, 간염, 급성신질환 등 중증 합병증
치사율	• 극히 낮음
실험실 검사	• 검체(혈액)에서 Chikungunya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료	• 대증요법
환자관리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격리 필요 없음
예 방	• 모기 기피제, 긴소매 옷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함 • 치쿤구니아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6개월간 헌혈금지

붙임 2
치쿤구니아열 국내 유입 환자 감염 국가 현황

연도	대륙별	국가별
2013	아시아(2)	파키스탄(1), 필리핀(1)
2014	남아메리카(1)	수리남(1)
2015	아시아(1)	인도(1)
	남아메리카(1)	에콰도르(1)
2016	아시아(10)	라오스(1), 인도(6), 인도네시아(1), 태국(1), 필리핀(1)
2017	아시아(5)	베트남(1), 인도(1), 인도네시아(2), 필리핀(1)
2018	아시아(3)	라오스(1), 말레이시아(1), 태국(1)
2019	아시아(16)	말레이시아(1), 미얀마(7), 방글라데시(1), 베트남(1), 태국(5), 필리핀(1)
2020	아시아(1)	캄보디아(1)
2021	-	-
2022	아시아(7)	인도네시아(2), 캄보디아(2), 태국(1), 필리핀(2)
	아프리카(1)	기니(1)
2023	아시아(12)	베트남(1), 인도(1), 인도네시아(3), 태국(7)
	남아메리카(1)	파라과이(1)
2024	아시아(9)	라오스(1), 베트남(1), 인도(3), 인도네시아(1), 필리핀(3)
2025. 7.	아시아(1)	인도네시아(1)

01 치쿤구니아열은 어떻게 감염·전파되나요?

- 주로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 드물게는 수혈, 장기이식, 주사기 등으로 인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02 치쿤구니아열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모기에 물린 후 1~12일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며, 급성 발열, 관절통이 주로 나타나고 이 외에도 두통 근육통, 관절 부종 또는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심근염, 뇌수막염, 길랑-바레 증후군, 뇌신경마비, 눈 질환(포도막염, 망막염)과 골수염, 간염, 급성신질환 등 중증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3 치쿤구니아열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나요?

-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풍토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인도양 주변 국가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04 치쿤구니아열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나요?

- 치쿤구니아열은 국내에서 2차 전파된 사례는 없으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전파 위험성이 있습니다.

05 치쿤구니아열 예방수칙은 무엇인가요?

-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여행시 모기기피제, 모기장 등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밝은색의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귀국 후 2주 이내 증상 발생시 의 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으세요.

06 치쿤구니아열의 치료제 및 백신이 있나요?

- 치쿤구니아열 특화된 치료제가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합니다.
- 국내 허가된 백신은 없으며, 미국 및 EU 등에서 허가된 백신 두 종류(생백신, 바이러스유사입자백신) 백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주의하세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1



여행 전 국가별 감염병 발생현황 및 주의사항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

기피제

모기향

밝은색 긴팔, 긴바지

방충망

모기장

모기 퇴치용품(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및 긴바지 등) 사용하고, 풀숲 및 산속 등 모기 많은 곳 방문하지 않기

3

발열

발진

근육통/관절통

결막염

두통

귀국 뒤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여행력 알리고 치료받기
 *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4



남녀모두
6개월간
 성접촉 피하기!

해외여행 후 4주간 헌혈이 금지되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는 귀국 후 6개월간 임신 연기 및 성접촉 피하기